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용자 이자 보전

전주시, 23일까지 대상자 모집... 100kW 미만 발전시설 설치자금 용자 시 발생하는 이자차액 2% 지원

오는 2050년까지 실질 탄소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도시로 나아가 갈 것을 선언한 전주시가 돈을 빌려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시민들에게 이자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시는 민간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부담을 완화해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확대하고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자 오는 23일까지 '2021년 태양광 발전시설 용자 이자 보전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시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자금을 융자하는 경우 향후 3년간 2%의 이자

차액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시는 올해 총사업비 5000만 원을 들여 100kW 미만 발전시설 15개소 분량의 이자차액 보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전주시내에 1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로, 전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자여야 한다. 발전사업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고 신청 당시 태양광 발전시설의 공사착공을 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자가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경우 이자 지원 사업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3개월 이내에 시

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에서 용자 실행을 하면 되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계획서 상 사업기간 내 완료하고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시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희망자는 전주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은 지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전주시청 맑은공기에너지과 에너지정책팀(완산구 노송광장로 29, 4층)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민선5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장은 "시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로부터 자유로운 전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우리 지역에서 거의 유일

하게 활용 가능한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의 설치 지원방안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2025년까지 에너지 자립률을 30%까지, 전력 자립률을 40%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에너지디자인 3040'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시민햇빛발전소 운영 ▲배란다형 태양광 보급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그린홈) 보조금 추가 지급 등의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전북도·전주시 보훈공원 명칭 공모

적합성·친밀성·참신성 등 평가 10월 중 명칭 결정

전주시는 오는 27일까지 내년 6월 준공 예정인 전라북도·전주시 보훈공원의 명칭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기존의 경직된 명칭에서 벗어나 보훈공원의 역사적 의미를 반영하면서 보존·애국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상징적인 명칭을 정하고자 추진된다.

선정기준은 ▲보훈공원 조성 취지에 맞는 적합성 ▲시민이 쉽게 기억하고 다가갈 수 있는 친밀성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참신성 등으로, 전라북도·전주시 보훈공원 추진위원회와 전주시 명칭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중 명칭이 결정된다.

시는 최우수상 1명, 우수상 1명, 장려상 1명을 선정해 각각 30만원, 20만원, 10만원 상당의 은수리상품권을 지급할 방침이다.

/김윤상 기자

응모는 지역, 성별, 연령에 상관 없이 누구나 가능하며, 응모명칭은 1인 1점으로 제한된다.

희망자는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에서 내려 받은 공모제안서 등을 작성해 이메일(stang1002@korea.kr)로 제출하거나 전주시 생활복지과(완산구 노송광장로 29, 2층)로 우편 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공동으로 조성하고 있는 전라북도·전주시 보훈공원은 총사업비 65억 원을 투입해 송천동 전북지역 독립운동추념탑 일원에 3만336㎡ 규모로 내년 6월 건립된다. 후손들의 애국정신 고취 및 보훈문화 정착을 위해 호국영령탑, 추모광장, 전시관 등이 갖춰진다.

/김윤상 기자

초등학생·학교 밖 청소년 진로 탐색 돕는다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다양한 진로체험 특성화 사업 진행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정혜선)가 여름방학을 맞은 초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미래 진로를 탐색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13일 초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초등학생 진로탐색교실 꿈 Dream ▲꿈멘토와 꿈꾸다 ▲시작하다 BTS(Beginning To Start) 등 다양한 진로 체험 특성과 사업을 진행했다.

먼저 '초등학생 진로탐색교실 꿈 Dream'의 경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로봇공학, 스마트하브 등 미래 세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 '꿈멘토와 꿈꾸다', '시작하다 BTS'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전주비전대학교 컴퓨터정보과와 응급구조학과를 찾아 직업 멘토로부터 웹/앱 개발자와 응급구조사 직업에 대한 정보를 습득했다.

오는 30일에는 전주대학교 경찰학과와 관광경영학과에서 '시작하다 BTS' 프로그램을 이어갈 예정이다.

센터는 진로체험 기회가 부족했던



초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진로 탐색 및 직업에 대한 경문을 높이는 계기가 됐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혜선 센터장은 "전주시 청소년들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다양한 진로체험 특성과 사업을 통해 자신의 꿈과 진로를 알아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의 생명을 살리고 삶의 주제로 세우는 최상의 상담복지서비스 전문 기관이라는 비전 아래 만 9~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인상담, 집단상담 및 심리검사 등을 제공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오손도손 슬로시티 전주학교' 운영

'한지와 함께하는 슬로라이프' 주제 10월 6일까지 시민 500여 명 대상

국제슬로시티인 전주시가 '느림'의 슬로시티 철학과 가치를 알리고 슬로라이프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교육에 나섰다.

시는 이달부터 오는 10월 6일까지 약 두 달간 시민 500여 명을 대상으로 '오손도손 슬로시티 전주학교'를 운영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번 오손도손 슬로시티 전주학교는 '한지와 함께하는 슬로라이프'를 주제로 한 슬로시티 및 슬로철학에 대한 교육과 전통공예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꾸며진다.

슬로시티 전문 강사 8명과 한지 체험 강사는 지난 4일 첫 강연을 시작으로 ▲슬로시티 전주의 이해 ▲슬로라이프와 한지 이야기 ▲전통한지를 이용한 부채·접시 만들기 등에 대해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프로그램은 화상회의 앱 줌(ZOOM)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 6회와 대면 교육 10회에 걸쳐 운영될 예정으로, 한국전통문화전당 리빙콘텐츠DIT센터에서 펼쳐지는 대면 교육의 경우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손소독제 사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실시된다.

이번 교육 참가를 원하는 시민은 한국전통문화전당 홈페이지(www.kttc.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017년 시작된 '오손도손 슬로시티 전주학교'는 복자관과 문화의 집, 작은도서관, 초등학교 등에서 총 219회에 걸쳐 7904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김윤상 기자



지난 15일 제76주년 광복절을 맞아 강동화 전주시의장이 전북지역 독립운동추념탑을 참배하고 있다.

전북지역 독립운동추념탑 참배

전주시, 제76주년 광복절 맞아 순국선열 희생정신·애국심 되새겨

전주시는 지난 15일 제76주년 광복절을 맞아 전북지역 독립운동추념탑 참배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명규 전주시장과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오인택 광복회 전주시지회장 등 최소 인원만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조국의 광복을 위해 투

쟁한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정신과 숭고한 애국심을 되새기기 위한 헌화와 분향, 묵념 등을 진행했다.

한편 광복절은 대한민국이 35년간의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에서 광복을 되찾은 날인 1945년 8월 15일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완산구, 9월까지 효천지구 사거리 상습침수구역 하수관로 보수공사 마무리

집중호우 시 도로가 물에 잠겨 교통사고 위험이 높았던 전주시 효천지구 사거리 일대의 하수관로가 정비된다.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김병수)는 오는 9월까지 폭고개로 303 일원의 하수관로를 확장·정비하는 '효천지구 사거리 상습침수구역 하수관로 보수공사'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번 공사는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고 있는 가운데 폭우에 따른 건물 침수와 도로 통제 등의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실시된다.

구는 2억 원의 재난지원기금을 투입해 약 70m 구간의 기존 관경(가로

0.6m x 세로 0.8m)에 가로 1.5m x 세로 1.0m 크기의 암거(배수로)박스를 추가 매설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간당 30mm가 넘는 강우량에도 배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구 온난화로 집중호우 발생이 잦아짐에 따라 속고개

로 지역의 침수 피해도 커지고 있다"면서 "이번 공사를 통해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과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불편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집중호우 발생 시 집중정(맨홀) 위치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상습침수구역에 중심으로 집중정 인근 도로경계석에 알람 표지를 부착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